

2020 교사용 뉴스레터

#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7가지 오해와 진실



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 
학교정신건강지원센터  
School Mental Health Resources and research Center

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는 아직도 뿌리 깊어서  
병원 방문의 문턱을 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.

**이번 뉴스레터에서는**

**한국사회에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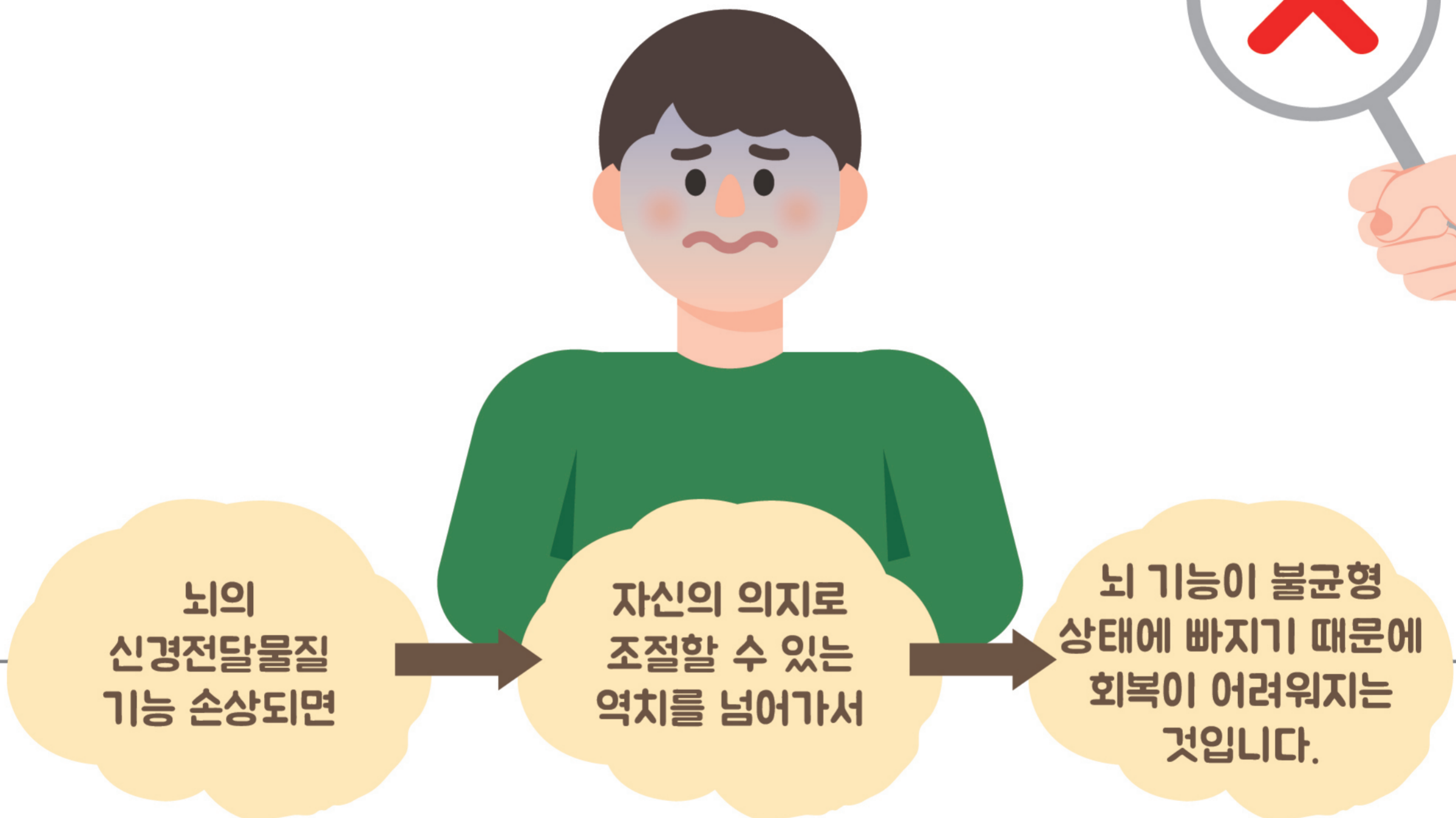
**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7가지 오해와**

**진실**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



## 오해 1.

# 정신질환은 성격의 결함 또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다?



정신질환(우울증, ADHD 등)은 뇌세포의 기능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오해 2.

# 정신질환 치료에 약물치료가 필수적이다?

약물  
치료



비약물  
치료

내담자에 따라 약물치료 및 비약물적 치료  
(놀이치료, 학습치료, 사회기술훈련) 등 다양한  
치료기법 중 더 적합한 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.

### 오해 3.

# 정신과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지고 바보가 된다?



정신과 약 중에서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물을  
복용하면 **간혹 낮 동안에 머리가 멍해질 수 있습니다.**  
하지만 그렇다고 **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.**

#### 오해 4.

# 정신과 약은 중독이 돼서 한번 복용하면 끊기 어렵다?



정신과 약 중 일부인 항불안제, 수면제의 경우 의존성향이 높은 일부 환자들에게 의존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약물 때문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질병적 특성 때문입니다.

## 오해 5.

#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는다?

열람  
NO!



부모님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성인이 된 환자의  
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.

-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타인에게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  
(만 14세 미만의 경우, 직계가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)
- 개인의 질병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5년 보관하지만 이후 폐기됩니다.

군입대나 취업시에도 군대나 회사가 개인의 동의 없이  
의료기록을 열람할 권리는 없습니다.

오해 6.

#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 가입할 수가 없다?



회사마다  
약관확인



개인보험의 경우, 회사마다 약관이 매우 다양합니다.

치료가 완료되어 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회사마다 약관을 잘 살펴보세요.

오해 7.

# 메칠페니데이트는 약물중독 가능성이나 의존성이 큰 약으로 성장저해를 초래한다?



**ADHD가 잘 치료되어 호전되면 메칠페니데이트를 중단  
해도 금단현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없이 중단할 수 있습니다.**

※ 메칠페니데이트: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(ADHD) 치료 약물로  
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

